



미원렉처

피터 카젠스타인 Peter J. Katzenstein

세계정치와 문명 : 동서양을 넘어서

Civilizations in World Politics : Beyond East and West

2012년 12월 3일(월)

경희대학교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미원렉처Miwon Lecture는 경희대학교 설립자 故 조영식 박사의 호 ‘미원美源’을 따서 이름 지은 특별 강연입니다. 경희대는 ‘문화세계의 창조’를 창학정신으로,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원렉처는 국내외 석학과 거장, 실천인을 연사로 초빙해, 더 나은 인간과 세계, 문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니다.

취지

복잡하고 글로벌한 세계에서 관습적 사고와 공공 논쟁은 역설적이게도 동양과 서양이라는 단순 범주로 구분돼 진행된다. 이와 같은 이분법적 구분의 기원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럽 국가들이 주도한 제국주의 팽창의 문화적 근거를 문명인과 비문명인으로 이분화한 정치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피터 카젠스타인(Peter J. Katzenstein) 코넬대학교 석좌교수는 이번 강연을 통해 이론적으로 잘못되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세계 정치에 대한 사고방식을 비판한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현재에도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고, 동서양을 아우르는 문명화 과정과 문명의 정체성에 대해 고찰한다.

이번 특강은 피터 카젠스타인 교수가 발간한 3부작을 토대로 한다. 최근 발간된 3부작은 『세계정치 속 문명: 다원적 및 다원주의적 관점』(*Civilizations in World Politics: Plural and Pluralist Perspective*), (New York: Routledge 2010), 『중화화(中華化) 및 중국의 부상: 동서양을 넘어선 문명화 과정』(*Sinicization and the Rise of China: Civilizational Processes beyond East and West*), (New York: Routledge, 2012), 『앵글로아메리카와 불만: 동서양을 넘어선 문명 정체성』(*Anglo-America and Its Discontents: Civilizational Identities beyond West and East*), (New York: Routledge, 2012)으로, 세계 정치와 문명의 미래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피터 카젠스타인 Peter J. Katzenstein

코넬대학교 석좌교수

코넬대학교 석좌교수(Walter S. Carpenter, Jr. Professor of International Studies)다. 정치학자로서 국제관계와 비교정치 전문가이며 국제관계에 있어 아시아(특히 일본과 중국)와 유럽(특히 독일)의 역할 연구에 집중해 왔다. 국가간 체계(interstate system) 내의 문화, 종교, 정체성(identity), 지역주의(regionalism) 등이 주요 연구 분야다.

1982년부터 100여 권이 넘는 책을 편찬했다. 약 13년간의 연구를 집대성해 2005년 발간한 *A World of Regions :Asia and Europe in the American Imperium*은 그의 대표 저작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세계정치와 문명의 문제를 동서양을 넘어선 문명 과정과 정체성을 축으로 다원주의적 시각에서 풀어내는 책을 집중적으로 펴냈다.

미국정치학회장을 역임했으며(2008~9), 미국 예술과학아카데미(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1987)와 미국 철학회(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2009)에 선출되기도 했다. 독일 출신으로, 독일과 영국에서 수학했으며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세계정치와 문명 : 동서양을 넘어서”

문명이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코드로 재부상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되었을 때, 세계의 지성들은 문명의 충돌을 예견했다. 저명한 정치학자였던 헨팅턴이 출간한 『문명의 충돌』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슬람 근본주의의 대두는 이러한 예견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국제분쟁의 초점이 됐다. 민족국가와 세속적 이념을 대신해 문명이 세계사의 흐름을 좌우하는 방향타가 되고 있다.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의해 납치된 민간 항공기가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빌딩과 충돌하는 장면은 이슬람과 서구문명 사이의 메울 수 없는 간극을 세계인의 뇌리에 각인시켰다.

그러나 탈냉전과 9·11이후에도 세계화는 계속됐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전 세계로 확산됐다. 아랍의 봄으로 일컬어지는 아랍민중들의 자유화와 민주화에 대한 함성은 이슬람 세계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바꿔 놓았다. 중국의 개혁, 개방과 부상 그리고 세계경제의 중심이 동아시아로 이동하는 추세 역시 동양에 대한 서구인들의 인식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카젠스타인 교수가 제시한 문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방법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합한다. 문명은 서로 배타적이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류하고 진화하면서 타협과 공존의 끝없는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서양을 구분하고 문명간의 차이를 부각시키며 충돌을 예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프로젝트라고 그는 주장한다. 문명이 본질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정치집단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문명의 본질을 왜곡하고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라는 주장이다.

오늘날 세계에는 하나의 세계문명이 다양한 형태로 발현한 근대성들이 공존하고 있다. 영미문명과 이슬람문명도 이러한 세계문명이 출현하는 데 가교역할을 했다. 미국인들의 삶과 문화 속에 이슬람적인 것들이 녹아 있고, 아랍인들의 의식과 생활 속에 미국적인 것들이 스며들어 있다. 상이한 근대성들은 서로 대면하고 교류하며 진화한다. 동양과 서양을 구분하고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은 경험적으로 맞지 않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이다. 용감한 정치인들과 지성인들이라면 동서양을 가르는 다리를 건너 우리가 지금껏 걸어 보지 못한 미지 세계로의 여행을 시도할 만하다. 이것이 카젠스타인 교수의 인류문명 강연의 초점이다. 경희대학교가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창학정신에 토대로 인류문명클러스터의 출범을 준비하며 카젠스타인 교수를 초빙한 이유이기도 하다.

라운드테이블

야스나리 다카다 일본 도쿄대학 총합문화학(Transcultural Studies) 교수다. 전문분야는 근대성 비교연구, 중세, 르네상스 문학과 철학, 서양 고전의 수용(Reception of the Western Classics) 등 이다. 2010년에 출간한 *Critical Moments : Origins of Criticism and Recognition of Crisis* 외 다수의 책과 논문을 집필했다. 일본 서양중세연구학회(2009~2011), 일본 셰익스피어학회(1993~1998)의 회원(Councilor)으로 참여했고, 1988년부터 현재까지 <Poetica>의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한구 서울대학교에서 “칼 포퍼의 역사주의비판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원혜대학, 브라운 대학, 동경여자 대학 및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의 연구교수를 지냈으며,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 본부장을 역임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이며, Scopus 한국저널선정위원회 위원이다. 열암학술상과 서우철학상 및 대한민국학술원상을 수상했고, 한국분석철학회와 철학연구회 및 한국철학회의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저서로는 『역사주의와 반역사주의』(2010), 『역사학의 철학』(2007), 『지식의 성장』(2004) 등이 있다.

정진영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이며, 국제대학 겸 국제대학원 원장이다. 한국정치학회 부회장과 한국국제정치학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최근 논문으로 “동아시아의 복수, 경제체제 간 마찰, 그리고 세계 경제의 불균형 : 누가 조정의 부담을 안을 것인가?”(2010), “케인스, 국제통화체제, 세계금융위기 : 케인스의 복수와 귀환?”(2009) 등이 있다.

김상준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맹자의 땀, 성왕의 피 : 중증근대와 동아시아 유교문명』, 『미지의 민주주의 : 신자유주의 이후의 사회를 구상하다』 등이 있다. 사회과학의 메타담론인 근대성 이론을 해체, 재구성하는 이론작업과 역사연구를 진행해 왔다. 아울러 신자유주의 이후의 시대 일국 및 지구사회의 민주주의적 재구성 방안에 관한 경험적, 이론적 연구도 아울러 수행해 왔다.

권기봉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교수이며, 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 분야는 국제정치이론, 시민사회, 글로벌거버넌스다. 최근에 쓴 논문으로 “Politics of Recognition in the State Making and Remaking : A Phenomenological Investigation” (2009), “Recognition of Estranged Other : A Theoretical Reflection on Politics of Identity and Systems Integration in Inter-Korean Relations” (2010), “Seeking Harmony in the Middle Way” (2012) 이 있다.



프로그램

일 시 2012년 12월 3일(월) 13:30~17:30

장 소 경희대학교 오비스홀 111호, 본관(2층) 대회의실

사회 : 송재룡(미래문명원 부원장)

시 간	내 용	장 소		
13:30~14:50	개회	오비스홀 111호		
	환영사		조인원 총장	
	강연		피터 카젠스타인 코넬대학교 석좌교수	
	질의응답			
15:30~17:30	라운드 테이블	좌장	정진영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장	본관(2층) 대회의실
			피터 카젠스타인 코넬대학교 석좌교수 야스나리 다카다 도쿄대학 종합문화학 교수	
	패널		이한구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김상준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권기봉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장	
	폐회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KYUNG HEE UNIVERSITY